

## 기도

1.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나눔

1. 형식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습니까?
2.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눠주세요.

## 신앙

### 헤세드 (ḥesed, Chesed)

히브리어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 자비, 은혜, 인자 등으로 번역된다. 헤세드는 언약의 당사자들에 적용되는 단어로서 언약에 대한 충성과 성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헤세드는 언약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동기이자(시136),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시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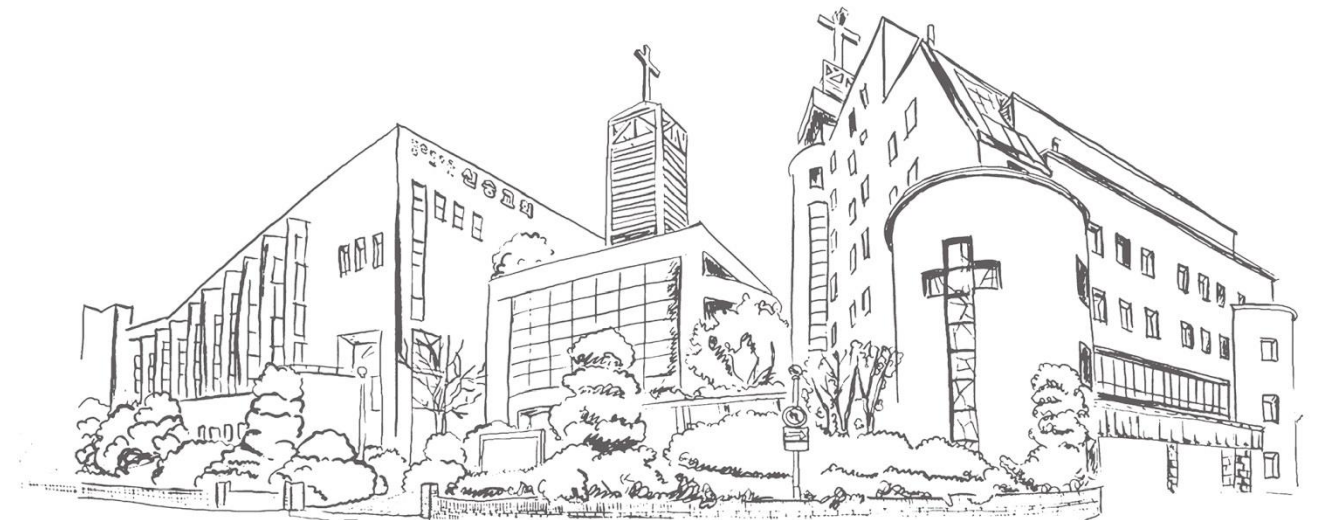


# 구역 공과

2022년 11월 13일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미가 6장 6-8절 (찬28장, 446장)

하나님께서서는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형식에 치우친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6-7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시며, 은혜를 많이 베풀었음에도 왜 나를 원망하냐고 말씀하십니다(1-5절). 그 때에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것들은 바르게 드린 것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6절a).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날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출29:42-43).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6절b). 번제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두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번제물인 일년 된 송아지를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마음 없이 겉으로만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7절a).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같이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많은 제물을 드려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드렸습니다(7절b).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허물을 위해 만아들과 자신의 모든 열매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 물렉을 섬기는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없이 단순히 자기 죄를 모면하기 위한 가식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시고, 주를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로 드리지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8절a). 히브리어 ‘정의’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헛된 예배가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중심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가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8절b).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자비’를 의미하는데,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자비 베푸는 것을 사랑하듯이 항상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언약을 항상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8절b).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레19: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생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대로 행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